

지금도 만들어지는 셰익스피어 비극의 매력

충실한 재현에서 격렬한 재해석까지

송희복 | 영화평론가

오늘날 우리에게 셰익스피어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무대공간이나 영상의 이미지로

화려하게 재생되는 셰익스피어 극에서

생의 비탄과 인간의 본원적인 욕망을

감득하고 체득하려는 것일까?

고통의 신비성을 수반한 장엄한 슬픔이 시공간적인 특수성을 넘어 보편적인 문맥에서 수용되는 정서적 쾌적, 그 기적적인 정화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물론 셰익스피어라는 막대한 힘은 19·20세기를 풍미했던 영미식의 경제적 자본주의와 문화적 패권주의라는 배경에서 비롯된 영문학의 정치적인 위력과 밀접한 상응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대답을 옥타비오 파스의 발언에서 구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세계에서 우리는 혼돈의 복귀를 목격한다. 사물과 존재 사이의 경계는 사라지고, 범죄가 덕이 될 수 있으며, 결백은 죄가 될 수 있다. 적법성의 상실은 세계를 동요하게 만든다. 현실은 꿈이며 악몽이다. 우리는 또 다시 환영 사이를 걷는다.”(《활과 리라》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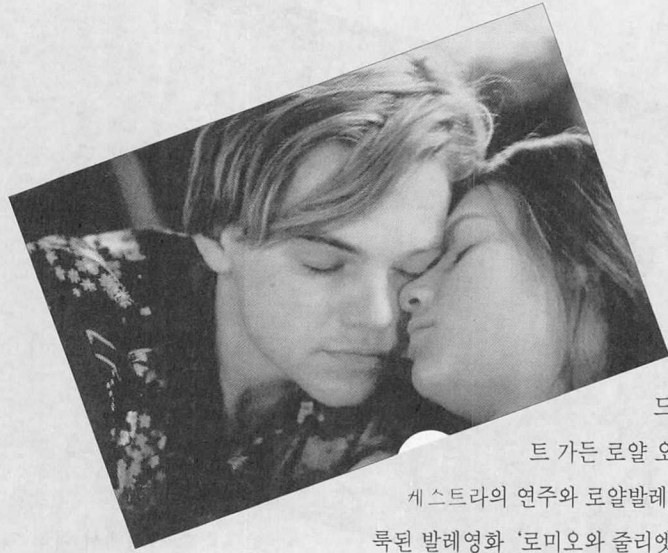
팬들에게는 가장 인상깊은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각인된 1968년도 작.

셰익스피어가 그려낸 인간들의 꿈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악몽이자 백일몽이다. 여기에서 셰익스피어 극의 향연은 존재의 당위성, 그리고 혼돈과 질서, 환영과 현실 사이의 긴장된 힘을 얻게 된다.

악몽이자 백일몽의 세계

영화 속에 반영된 셰익스피어의 모습은 대체로 두 가지다. 하나는 재현된 모습이며, 다른 하나는 재해석된 모습이다. 앞것의 성과작이 로렌스 올리비아·오손 웰즈·케네스 브래너 등의 정통파에 의해 연극적인 미학의 전통을 계승했다면, 뒤엎은 기교·변용·흥행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띤다. 이 때 원작을 훼손했으나, 텍스트를 재창조했느냐 하는 논란이 항상 뒤따르기 마련이다. 좋은 의미의 재창조란, 원작의 훼손이 아니라 발랄하면서도 유쾌한 오독을 창조하는 행위일 터이다.

셰익스피어 영화 중에서, 원작의 훼손이든 창조적인 오독이든 간에 가장 많이 재창조된 경우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우선 이것은 비극적인 연애담이 갖는 통속적 서사구조로 인해 영화로 수용되기에 매우 적합하다. '로미오와 줄리엣'에 관한 한, 재해석의 전성기는 1960년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로버트 와이즈의 연출, 제롬 로빈스의 안무, 레오나드 번스타인의 음악이



도회지적인 정육의 로망스로 변형된 디카프리오 주연의 최근작.

어우러진 뮤지컬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코멘트

트 가든 로얄 오페라하우스 오

케스트라의 연주와 로얄발레단의 춤으로 이룩된 발레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등이 있었다. 특히 영화적인 재해석으로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경우는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열다섯 살 나이의 청순한 이미지가 돋보인 올리비아 핫세는 스크린을 통해 줄리엣의 전형적인 모습을 창조했고, 니노로타의 아릿하고 아름다운 음악인 사랑의 테마 'What is youth'는 세계인의 심금을 울리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광란의 디스코풍 음악과 파괴적인 영상 속에서 90년대 신세대의 감수성과 도회지적인 정육의 러브로망스로 변형된 최근의 뉴버전 '로미오와 줄리엣'은 흥행면에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예술적으로는 두 사람의 사랑처럼 치명적인 과묵으로 치달았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에는 사랑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증오의 복선이 깔려 있다. 여성철학자 크리스티바의 이른바 '사랑의 정신분석학'에 의하면 이 점이 특히 강조된다. 따라서 정신분석학적으로 재해석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도 기대된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재해석과 변주

셰익스피어의 영화는 그동안 끊임없이 변주돼 왔다. 로만 폴란스키의 '맥베드', 장 뤽 고다르의 '리어왕', 테릭저먼의 '템페스트', 피터 그리너웨이의 '프로스페로의 서재', 리처드 롱크레인의 '리처드 3세', 그리고 호화스런 캐스팅을 앞세우면서 이번 추석 때 개봉한 '한 여름밤의 꿈' 등등. 그러나 우리는 《맥베드》와 《리어왕》을 일분식으로 각색한 구로사와 아키라의 명편 '거미의 성'과 '난'을 각별하게 떠올리지 않으면 안된다. ●